
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

2023. 6. 21.

관 계 부 처 합 동

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[요약]

1. 농식품분야 투자 현황 및 진단

- (현황) '21년 농림어업 투자는 5.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(38.6조 원)의 14.9%이며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(31.6%)보다 낮은 수준

* 농림어업 GDP 대비 농림어업 총고정자본형성 : ('11) 16.6% → ('15) 15.3 → ('19) 15.8 → ('21) 14.9
전체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: ('11) 30.2% → ('15) 29.0 → ('19) 30.1 → ('21) 31.6

- '22년말 농림어업분야 상장기업은 6개(코스피 4, 코스닥 2), 시가총액은 3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.14% 수준(코스피의 0.16%, 코스닥의 0.05%)

* 식품분야 포함 시 시가총액 비중은 1.7% 수준(코스피(40개) 1.7%, 코스닥(43개) 1.7%)

- '22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,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(13.6조 원)의 0.9% 수준(한국벤처투자협회)

- 한편, 첨단기술(ICT·AI 등)을 접목한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등의 발전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제시

* (스마트농업) 생산량 34%↑, 소득 40%↑, (푸드테크) 국내 시장 연평균 31% 성장(17~'20년)

☞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농식품분야 성장잠재력 실현 필요

- (진단) 정보 비대칭, 투자금 유동화수단 및 민간자본 유인구조 부족

- 산업동향, 우수경영체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부족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수준

* 경영정보 파악이 용이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.4% 수준('21년 기준)

- 세컨더리펀드* 등 중간회수 수단이 타 산업 대비 부족하여 '투자-회수-재투자'의 선순환에 한계('22년 농식품분야 누적 720억 원 결성)

* 투자 후 회수하지 못한 자금 유동화를 위해 다른 펀드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(LP)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(벤처분야 '22년 누적 2.3조 원 결성)

- 정책금융,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고, 민간 모펀드가 정책 펀드와 함께 모험자본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부족

2. 목표 및 추진전략



3. 세부 추진방안

[전략 1]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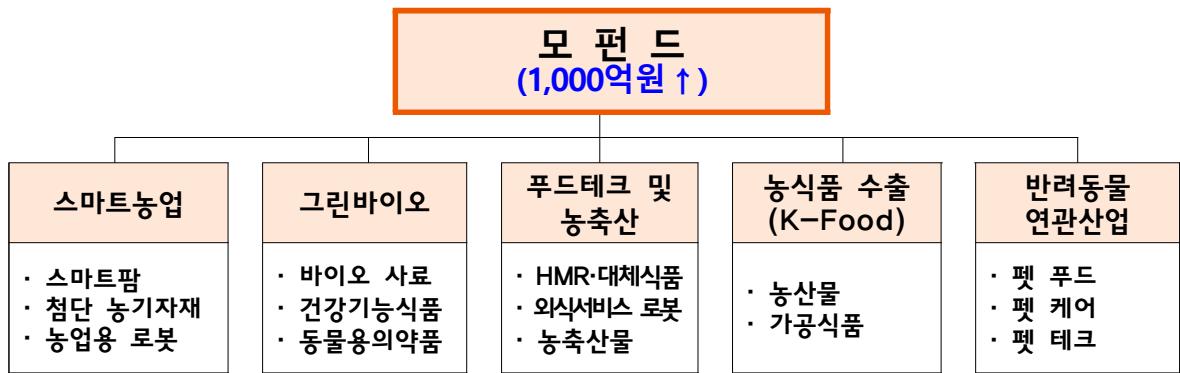
①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우수기업 발굴 확대

- **(정보 생산)** 농식품분야 유망산업, 우수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 정보 분석보고서 발행·공시('23.7월, 농협·농식품벤처투자협회 등 협업)
* 분기별로 산업동향·우수경영체 분석보고서 20개 이상 발행(연 80개 이상)
- **(정보 공유)** 경영체,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'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' 구축('23.9월)
* 창업·투자 지원정보와 산업동향, 경영체 정보 통합 제공, 경영체-투자자 매칭서비스

② 민간 주도 농식품 투자 펀드 확대

- **(모펀드 도입)**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민간 모펀드 도입(1,000억 원), 이를 통해 '27년까지 2,500억 원 이상 자펀드 결성 추진('24~'27년)
* '23년 결성 예정인 민간 펀드 500억 원 포함 시 '27년까지 총 3,000억 원 규모 민간 펀드 결성,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등 핵심 5대 분야 유망경영체에 집중 투자
- **(제도기반)** 민간 모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및 민간 투자자의 모펀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(농식품부, '23년)

< 농식품분야 민간 모펀드 구축 계획(안) >



③ 회수시장 활성화

- **(중간 회수)**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'27년까지 세컨더리펀드 1,500억 원 이상 추가 결성('18~'22: 720억 원 → '23~'27: 1,500)
- **(상장지원)** 한국거래소(KRX)와 협업을 통해 전략 컨설팅 제공, 상장 주관사 네트워킹 등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 지원체계 구축('23년)
 - * 한국거래소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간 업무협약 체결('23.5월)
- **(자산거래)** VC구주유통망, KSM 등 타 분야 자산거래 플랫폼*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('23년, 한국거래소·중기부 등 협의 추진)
 - * (VC구주유통망) 한국벤처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투자자산 거래 플랫폼, (KSM) 스타트업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

④ 민간 여신시스템 개선

- **(여신 개발)** 잠재력이 높은 경영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력,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여신상품 개발(농협, '23.7월)
 - * 연 1조 원 규모 신규 여신 제공('23년 3,000억 원), '27년까지 총 4.3조 원 공급
 - ** 대출한도 상향(최대 15%), 금리 우대(최대 2.0%p), 이자납입 유예(최대 2년) 등 우대
- **(컨설팅 강화)**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, 금융·경영 컨설팅 확대(농협, '24.1월)
 - * 경영관리, 세무, 가업승계, 경영회생 등 수요가 많은 분야 컨설팅 강화

[전략 2]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

①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방식 다양화

- **(펀드 확대)** '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하여 스타트업, 청년농, 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
 - * 정책 펀드 결성 규모 : ('18~'22) 7,400억 원 → ('23~'27) 1조 원 이상(정부 0.6+민간 0.4)
- **(투자방식 다양화)** 초기 경영체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도입,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유동성 확충 방안 마련
 - *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발의('23.6월)

② 투자 매칭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

- **(투자 박람회)** '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' 정례화('23.7월, 최초 개최) 등 국내·외 민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투자 매칭 지원
- **(기술투자로드쇼)** 창업·투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(IR), 제품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'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' 개최(연 1회 이상)

[전략 3]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

①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

- **(비농업인 참여 확대)**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,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('23년)
 -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발의('23.4월)
- **(연계 교육)** 과학기술특성화대학-농업대학 인재 간 연계 교육과 연구 교류를 통해 비농업계 인재의 농산업 진출 유도('23년)

②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

- **(회계교육 강화)** 예비 창업농 회계교육 확대 및 회계장부 성실 작성 시 인센티브 부여,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세무·회계교육 강화('23년)
- **(농업법인 전환)**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 발굴('23년)

순 서

I. 현황 및 진단	1
1. 농식품분야 투자 현황	1
2. 농식품 투자 관련 진단	2
II. 목표 및 추진전략	3
III. 세부 추진방안	4
1.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	4
2.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	8
3.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	10
IV. 향후 추진일정	12

I. 현황 및 진단

1

농식품분야 투자 현황

- '21년 농림어업분야 투자는 5.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(38.6조 원)의 14.9%이며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(31.6%) 대비 낮은 수준
 - * 총고정자본형성 : 생산주체가 미래 지속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자본재 구입액
 - ** 농림어업 GDP 대비 농림어업 총고정자본형성 : ('11) 16.6% → ('15) 15.3 → ('19) 15.8 → ('21) 14.9
국내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: ('11) 30.2% → ('15) 29.0 → ('19) 30.1 → ('21) 31.6
- '11~'21년 농림어업분야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.2%, 국내 투자 증가율 4.6%, GDP성장률 4.1%, 농림어업 GDP성장률은 2.3% 수준
- '22년말 농림어업분야 상장기업은 6개(코스피 4, 코스닥 2), 시가총액은 3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.14% 수준(코스피의 0.16%, 코스닥의 0.05%)
 - * 식품분야 포함 시 시가총액 비중은 1.7% 수준(코스피(40개) 1.7%, 코스닥(43개) 1.7%)
- '22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,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(13.6조 원)의 0.9% 수준(한국벤처투자협회)
- 한편, 첨단기술(ICT·AI 등)을 접목한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등의 발전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시
 - * (스마트농업) 생산량 34%↑, 소득 40%↑, (푸드테크) 국내 시장 연평균 31% 성장(17~'20년)
- 특히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 우수사례*를 다수 창출함에 따라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
 - *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(예비)유니콘기업 13개사(유니콘 1, 예비 12), 상장 6개사 배출 등

< 투자 우수사례 : 농업회사법인 (주)우듬지팜 >

- ▶ 충청권 최대 규모 스마트팜(10.5ha)을 통해 토마토·파프리카 등 생산
- ▶ 농식품 모태펀드 '17년 50억원, '20년 40억원 투자
- ▶ '18년 매출액 95억 원에서 '20년 232억 원, '22년 449억 원으로 증가
- ▶ UAE와 스마트팜 MOU 체결(1,000만 달러), 코스닥 상장 추진 중



☞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해 농식품분야 성장잠재력 실현 필요

[1] [정보 비대칭]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정보 파악 어려움

- 산업동향, 우수경영체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부족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수준
- 재무제표 등 경영체의 경영정보 생산·평가·제공 시스템이 부재하여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
 - 경영정보 파악이 용이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 중 1.4% 수준
 - * '21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체 177.7만개 중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 2.5만개

[2] [회수체계] 자산거래, 중간 회수 등 투자금 유동화 수단 부족

- VC구주유통망(벤처투자자산 거래 플랫폼) 등 국내 비상장 자산거래 플랫폼 내 농식품 경영체 참여 실적 저조*
 - * (VC구주유통망) 농식품 경영체 34건 등록(전체 등록건수의 2.6%, '23.1월 기준)
- 세컨더리펀드* 등 중간회수 수단이 타 산업 대비 부족하여 '투자-회수-재투자'의 선순환에 한계('22년 농식품분야 누적 720억 원 결성)
 - * 투자 후 회수하지 못한 자금 유동화를 위해 다른 펀드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(LP)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(벤처분야 '22년 누적 2.3조 원 결성)

[3] [유인구조]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과 인센티브 미흡

- 정책금융,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고, 민간 모펀드가 정책 펀드와 함께 모험자본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부족
 - 농식품 모태펀드*를 통해 '22년까지 7,000억 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나 민간 주도 펀드 결성은 미미('22년 530억 원 최초 결성)
 - * '10년 모태펀드 도입 후 '22년까지 94개, 1.6조 원(정부 0.9+민간 0.7) 농식품 펀드 결성
- 농식품 벤처·창업기업('19년 이후 감소) 확대를 위해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방식 마련 필요
 - * 농식품 벤처·창업기업(신규) : ('19) 2,274 → ('20) 2,180 → ('21) 2,132 → ('22) 1,840

II. 목표 및 추진전략

정책
방향

민간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한
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

목표

2023~2027년까지 5조 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

* 정부재원 포함 시 5.6조 원 투자재원 마련(민간 여신 4.3, 정책·민간 펀드 1.3)

핵심 전략

추진 과제

[전략 1]

민간투자 생태계 조성
및 혁신금융 확대

▶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우수경영체 발굴 확대

· 산업·경영체 투자보고서 발행,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('23.9)

▶ 민간 주도 농식품 투자 펀드 확대

· 모펀드 조성('24~'27, 1,000억 원↑), 민간 펀드 3,000억 원↑

▶ 회수시장 활성화

· 세컨더리펀드 확대('23~'27, 1,500억 원), 상장지원('23)

▶ 민간 여신시스템 개선

· 여신상품 개발('23.7), 농업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('24)

[전략 2]

경영체 성장을 위한
정책금융 역할 강화

▶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방식 다양화

· 정책 펀드 1조 원 결성('23~'27),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도입('23)

▶ 투자 매칭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

·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('23.7), 예비 창업농 컨설팅 제공('23)

[전략 3]

농업경영체 역량
강화 및 투명성 제고

▶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

· 비농업계 전문가의 농업법인 참여 확대('23), 연계 교육 실시('23)

▶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

· 예비 창업농 회계 교육 강화('23), 농업법인 전환 인센티브 발굴

III. 세부 추진방안

1

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

①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우수경영체 발굴 확대

▶ 산업동향, 우수경영체 투자정보 분석자료 발행·공시(농협 등, '23.7월)

▶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·운영(농식품부, '23.9월)

- (정보 생산) 농식품분야 유망산업, 우수경영체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 생산('23.7월, 농협·농식품벤처투자협회 등 협업)
 - (산업동향) 시장 구조·특성 등 산업동향 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·공시하여 농업분야 애널리스트 역할 수행('23.7월)
 - (우수경영체) 농식품 100대 기업을 발굴하고, 우수경영체에 대한 기업정보, 사업모델 등 상세 투자정보 분석자료 발행('23.7월)
 - * 분기별로 산업동향·우수경영체 분석보고서 20개 이상 발행(연 80개 이상)
- (정보 공유) 경영체, 민간 투자자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'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' 구축·운영(농식품부, '23.9월)
 - (정보 제공) 창업·투자 유관기관* 시스템 연계를 통해 창업·투자 지원정보, 산업동향, 경영체 정보 등 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
 - *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농업기술진흥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, 농협 등
 - (투자 매칭)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투자 매칭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 '매칭서비스' 기능 제공

<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체계도 >



② 민간 주도 농식품 투자 펀드 확대

- ▶ **민간 모펀드** 도입(1,000억 원 이상, '24~'27년)
- ▶ **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**(농식품부, '23년)

- **(모펀드 도입)** 민간 투자기관 공동 출자를 통해 민간 모펀드를 도입 ('24년)하여 수익성 등이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
 - '24년 500억 원 출자를 시작으로 '27년까지 1,000억 원 규모 모펀드 조성, 이를 마중물로 2,500억 원 이상 자펀드 결성 추진('24~'27년)
 - * '23년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500억 원 규모 우수경영체 전용 펀드 결성 예정, 이를 포함 시 '27년까지 총 3,000억 원 규모 민간 펀드 결성
 - 농식품 신산업 등 핵심 5대 분야^{*}를 선정하고, 해당 분야 내 사업성 등이 입증된 유망경영체에 집중 투자하여 우수사례 창출
 - * 스마트농업, 그린바이오, 푸드테크, 농식품 수출(K-Food),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
- **(제도기반)** 민간 모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및 민간 투자자의 모펀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(농식품부, '23년)
 - 농식품분야 민간 모펀드 정의, 등록요건, 출자·투자 의무 등 근거 조항 신설('23년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, '24년 도입)
 - 투자운용사 등 민간 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 시 농식품 모태 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우대 가점 등 인센티브 마련('23년)
 - * 현행 규정상 농식품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세액공제·양도차익 비과세 적용

< 농식품분야 민간 모펀드 구축 계획(안) >



3 회수시장 활성화

- ▶ 세컨더리펀드 1,500억 원 추가 결성(농식품부, '23~'27년)
- ▶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 마련(농식품부, '23년)
- ▶ 농식품 분야 투자자산 거래체계 구축(농업정책보험금융원, '23년)

□ (중간 회수) 자금 유동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 확대(농식품부, '23.7월)

-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'27년까지 세컨더리펀드 1,500억 원 이상 추가 결성('18~'22: 720억 원 → '23~'27: 1,500)

* 연도별 결성 규모 : ('23) 200억 원 → ('24) 250 → ('25) 300 → ('26) 350 → ('27) 400

□ (상장지원)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 마련(농식품부, '23년)

- 한국거래소(KRX)와 협업을 통해 상장 희망 농식품 경영체 대상 전략 컨설팅 제공, 상장 주관사 네트워킹 등 지원

* 한국거래소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간 업무협약 체결('23.5월), 상장 요건, 절차, 고려사항 등 교육·설명회 개최, 상장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병행

□ (자산거래)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투자자산 거래체계 구축(농금원, '23년)

- VC구주유통망, KSM* 등 타 분야 자산거래 플랫폼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참여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(한국거래소·증기부 등 협의 추진)

* KRX Startup Market :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(KRX)가 운영 중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

- 기존 거래 플랫폼 외에도 뱅카우 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자산거래 플랫폼 구축(조각투자 도입 등) 검토

* 토큰 증권(Security Token Offering) :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조각투자 증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→ 도입 관련 금융위 협의 추진

[참고: 뱅카우(조각투자 적용 사례)]

- ▶ (개요) 농가와 투자자가 한우에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투자 플랫폼
- ▶ (방식) 가축의 지분을 쪼개 사는 조각투자 방식, 최소 투자 가능 금액 4만 원
- ▶ (특징) 투자자는 송아지에 대한 지분 취득, 농가가 대신 사육 후 경매수익 배분
- ▶ (규모) '22년 말 11개 농가에 600여 마리를 조각투자 中, 누적 거래액 61억 원

④ 민간 여신시스템 개선

- ▶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**여신상품 개발**(농협, '23.7월)
- ▶ 농업 금융·경영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(농협, '24.1월)

□ **(여신 개발)** 잠재력이 높은 경영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**여신상품 개발**(농협, '23.7월)

* 연 1조 원 규모 신규 여신 제공('23년 3,000억 원), '27년까지 총 4.3조 원 공급

○ 주식회사 형태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력, 성장성 등 비재무적 요인을 대출 평가 시 확대 반영하도록 심사기준 개선

- 기술신용평가등급(TCB), 성장 추세(최근 2년간 매출액 등 성장률) 등 기술력,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* 신설

* (비재무평가 항목) 우수기술 보유, 매출액 증가 등 성장성, 인증 보유, 수상 이력 등

○ 비재무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 우대사항* 마련

* 대출한도 상향(최대 15%), 금리 우대(최대 2.0%p), 이자납입 유예(최대 2년) 등

< 여신상품 개발(안) : NH농식품기업우대론, 7월 출시 >

▶ (개요) 기업의 기술력, 성장성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등급별로 대출한도, 우대금리, 이자납입 유예 등을 차등 지원

▶ (평가기준) ①우수기술 보유(TCB), ②최근 2개년 당기순이익 시현·매출액 순증 등 성장성, ③농식품신기술(NET), HACCP 등 인증이력, ④특허기술상 등 수상이력 등

▶ (지원내용) 비재무평가 등급(1~3등급), 거래실적, 정책우대 등을 반영하여 대출한도 최대 15% 상향, 우대금리 최대 2.0%p 적용, 이자납입 최대 2년 유예 등 지원

□ **(컨설팅 강화)**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규모화된 농식품 경영체 중심 농업 금융·경영 컨설팅 확대(농협, '24.1월)

○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'(가칭)농업금융컨설팅팀'을 신설하고, 농업법인, 청년농업인, 귀농인 등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○ 세무, 경영관리 등 수요가 많은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경영 회생, 가업승계 등 컨설팅 분야 다양화 추진

①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방식 다양화

- ▶ 정책 펀드 1조 원 추가 결성(농식품부, '23~'27년)
 - ▶ 조건부 지분인수계약, 유동성 확충 등 투자방식 다양화(농식품부, '23년)
- (펀드 확대) '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하여 스타트업, 청년농, 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
 * 정책 펀드 결성 규모 : ('18~'22) 7,400억 원 → ('23~'27) 1조 원 이상(정부 0.6+민간 0.4)
- '23년 스마트농업, 그린바이오, 푸드테크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,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농식품 펀드 2,000억 원 이상 신규 결성
 * 스마트농업(200억 원), 그린바이오(200), 농식품 수출(200), 푸드테크(100) 등
 - 농촌지역 소멸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'지역 경제활성화 펀드' 결성 추진
 * 모태펀드, 지자체, 민간 공동 출자 → 펀드에 참여한 각 지자체 출자금의 200%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경영체에 의무투자(여러 지자체 참여 가능)
- (투자방식 확대) 초기 경영체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('23년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, '24년 도입)
- [참고: 조건부 지분인수계약(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; SAFE)]
- ▶ (개념)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 책정 후 지분율 산정, 선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(예: 기업가치 할인 → 지분율 상승)
 - ▶ (투자자) 기업가치 할인을 통한 지분율 상승 등 선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가능
 - ▶ (기업)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지분율 감소 방지 가능
- (유동성 확충) 농식품 펀드의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후속투자 확대 도모('23년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, '24년 도입)
 * 농식품 펀드의 투자목적회사(SPC) 설립 및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 가능 규정 마련

② 투자 매칭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

- ▶ **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개최 등 매칭 지원 확대(농식품부, '23년)**
- ▶ **예비 창업농 대상 농업정책자금 컨설팅 강화(농협, '23년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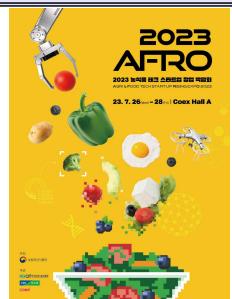
□ **(매칭 지원)**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 등 국내·외 민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 창출 및 매칭 지원

- 'NextRise*'를 벤치마킹하여 스마트농업, 그린바이오, 푸드테크 등 신산업 '유망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' 정례화('23.7월 최초 개최)

* 산업은행, 한국무역협회 등이 개최하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, '22년 2.5만명 참가, 316개 부스 운영, 2,000건 이상의 사업 협력·투자 밋업(meet-up) 성사

<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행사 계획(안) >

- ▶ (행사명) AFRO('앞으로') 2023 Agri&Food Tech Startup Rising Expo
- ▶ (일시/장소) '23.7.26.(수)~7.28.(금), 서울 코엑스
- ▶ (주관) 농업기술진흥원, 농협, 코엑스(주최: 농식품부)
- ▶ (참가자) 농식품 스타트업 300여개사, 국내·외 벤처캐피탈(VC) 등
- ▶ (내용) 300여개 스타트업 부스 운영, 글로벌 푸드테크 컨퍼런스 개최 등



- 농식품분야 창업·투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(IR), 제품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 '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' 개최(연 1회 이상)
* 이 외에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등 분야별 소규모 사업설명회 정기 개최(연 20회 이상)

□ **(컨설팅 강화)** 농업정책자금 관련 경영체·담당자 컨설팅 강화(농협, '23년)

-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농(농업대학,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·졸업생 등) 대상 농업 경영 컨설팅 제공('23년, 반기별 1회 이상)
- 창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, 농업정책자금·모태펀드 등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활용방법 등 설명회·강의 제공
- 정책자금 담당자 대상 컨설팅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
* 농·축산물 산업동향, 품목별 컨설팅기법 교육 및 농장현장 직무교육(OJT) 등

3

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

①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

- ▶ 농업법인 설립·경영 시 **비농업인 참여 확대**(농식품부, '23년)
- ▶ 과학기술특성화대학-농업대학 인재 간 **연구 교류 실시**(농식품부, '23년)

농업법인 설립·경영 시 **비농업인 참여 확대**(농식품부, '23년)

- 비농업인에게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자격을 부여하고, 설립 단계부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('23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)
- 영농조합법인 임원 자격도 부여하여 비농업계 전문성 활용 강화

< 비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(안) >

구 분		현 행	개 선	비 고
설립	농업회사법인 발기인 자격	농업인	농업인+비농업인	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개정
	비농업인 참여 단계	설립 후 자본금 증자 단계	설립 단계부터 참여 가능	
경영	영농조합법인 임원 자격	농업인	농업인+비농업인	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의2 신설

비농업계 인재 교육 확대 등 **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**(농식품부, '23년)

- 과학기술특성화대학-농업대학 간 연계 교육·연구 교류 실시
 - 농업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기술력을 접목한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농산업분야 진출 유도
- 연구 참여자 중 영농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대상 특허등록, 창업·투자 심층 컨설팅 등 지원 병행

[참고: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(안)]

- ▶ (운영방식) 영농창업특성화대학에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 발굴 →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기술력 등을 접목한 공동 연구, 과제 해결방안 제시
- ▶ (추진절차) 참여학생 모집, 팀 구성 등(7월) → 오리엔테이션(8월) → 연구 수행(9~11월) → 연구과제 성과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등(12월)

②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

- ▶ 예비 창업농 대상 회계·경영 교육 강화(농식품부, '23년)
- ▶ 농업법인 전환 인센티브 발굴(농식품부, '23년)

□ 예비 창업농 대상 회계·경영 교육 확대·인센티브 부여(농식품부, '23년)

-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대상 경영기록장*·회계장부 작성 실무 교육 신설(반기별 1회), 농업경영 관련 가이드북 발간 등 역량 강화 지원

* 농가 재배현황, 영농일지, 경영기록, 생산·판매 기록, 경영성과(소득분석표) 등 기록



- 창업 후 회계 장부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센티브*를 지급하는 방안 등 마련

* 우수과제 공모 지원사업, 해외연수 참가 시 가점 부여·우선 선정 등

-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대상 사전 교육 내 세무·회계 교육 강화

*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인원 : ('22) 5,400명 → ('23) 7,800

□ 가계-경영 분리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외부 자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 촉진

[참고: 농업법인 제도 개요 및 현황('90년 도입)]

- ▶ 영농조합법인(농업인 간 협업체)과 농업회사법인(기업농)으로 구분되며, 농지 소유, 세제 혜택, 정책자금 지원 등 가능
- ▶ '21년 기준 농업법인은 25,605개(영농조합법인 11,337, 농업회사법인 14,268)로, 전체 농업경영체(177.7만개) 중 1.4% 차지

- 농업법인 전환 시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발굴('23년)

I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주관기관	일정
1.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		
①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우수경영체 발굴 확대		
산업동향 리포트 정기 발행·공시(분기별 1회) 농식품 100대 기업 발굴 및 우수경영체 분석자료 발행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	농협, 농식품 벤처투자협회 농식품부	'23.7 '23.9
② 민간 주도 농식품 투자 펀드 확대		
민간 모펀드 도입 및 핵심 5대 분야 자펀드 결성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	농협 등 민간 농식품부	'24 '23
③ 회수시장 활성화		
세컨더리펀드 추가 결성('23년 200억원)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 마련 농식품 분야 투자자산 거래체계 구축	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	'23 '23.하 '23
④ 민간 여신시스템 개선		
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여신상품 개발 농업 금융·경영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	농협 농협	'23.7 '24.1
2.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		
①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방식 다양화		
'23년 농식품 정책 펀드 결성(2,000억 원) 조건부 지분인수계약, 유동성 확보 등 투자방식 다양화	농식품부 농식품부	'23 '23
② 투자 매칭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		
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개최 등 매칭 지원 확대 예비 창업농 대상 농업정책자금 컨설팅 강화	농식품부 농협	'23 '23
3.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 및 역량 강화		
①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		
농업법인 설립·경영 시 비농업인 참여 확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-농업대학 간 연계 교육·연구 교류	농식품부 농식품부	'23 '23
②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		
예비 창업농 대상 회계·경영 교육 강화 농업법인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	농식품부 농식품부	'23 '23

참고

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로드맵

- ◆ 펀드, 여신 등 **민간 금융시스템 연계**를 통해 **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 조성**
- (23년) 투자정보 생산·공유체계 구축, 펀드 확대·여신 개선 및 법령 정비 중점 추진
 - (중장기) 모펀드 등 민간자본 확충, 기업적 경영체로 성장 등을 위한 기반 조성
- ⇒ '27년까지 **민간자본 5조 원 유치(정부재원 포함 시 5.6조 원 투자재원 마련)**

구분	핵심전략	추진과제
'23년 중점 추진 과제	전략 1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	<p>①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우수경영체 발굴 확대</p> <p>① 산업동향·우수경영체 투자 분석 보고서 발행(7월) ②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·서비스 실시(9월)</p> <p>② 민간 주도 펀드 확대</p> <p>① 민간 모펀드 조성 근거 마련 (법 개정 추진) ② 우수경영체 투자 민간 펀드 결성(500억 원, 12월)</p> <p>③ 회수시장 활성화</p> <p>① 한국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상장지원프로그램 마련(7월) ② 세컨더리펀드 결성(200억 원, 7월)</p> <p>④ 민간 여신시스템 개선</p> <p>①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여신상품 출시(7월, '23~'27년 4.3조 원) ②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(~'24.1월)</p>
	전략 2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	<p>①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방식 다양화</p> <p>① 투자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 (법 개정 추진) ② 정책 펀드 2,000억 원 결성(12월)</p> <p>② 투자 매칭 확대 등 정책지원 강화</p> <p>① 예비 창업농 대상 농업정책자금 컨설팅 강화(반기별 1회) ②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개최(7월)</p>
	전략 3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	<p>① 타 분야 인재 유입 촉진</p> <p>①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근거 마련(법 개정 추진) ② 과학기술특성화대학-농업대학 간 연계 교육 실시(~'11월)</p> <p>②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</p> <p>① 예비 창업농 대상 회계·경영 실무 교육(반기별 1회) ② 농업법인 전환 인센티브 발굴</p>
장기 추진 과제	<p>민간자본 확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민간 모펀드 조성(1,000억 원↑) * 이를 마중물로 민간 펀드 2,500억 원↑ 결성 ■ 세컨더리펀드 확대(1,500억 원, '23~'27) 	<p>기업적 경영체로 성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타트업·청년농 등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 확대 및 농업법인 전환 촉진 * '23~'27년 정책 펀드 1조원 이상 추가 결성